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

- '이중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를 대상으로 -

이수곤*

<차 례>

1. 고전시가를 전공 과목이 아닌 인문교양 과목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
2.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과목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이 강좌의 이론 틀과 대상
4. 이 강좌의 큰 열개
5. 이 강좌의 내용 - '이중 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
6.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시가를 주대상으로 한 인문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고전시가의 소통력을 회복·강화하자는 취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학주제학이란 시각을 이론 틀로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이중 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을 주제적 단위로 선정하여, 한 강좌의 예를 제시하였다. 인문교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먼 옛날을 살았던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이중 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은 적절한 문학적 모티프라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 인문교양, 고전시가, 소통, 문학주제학, 이중 자아, 불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금교수

1. 고전시가를 전공 과목이 아닌 인문교양 과목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

많은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립된 학부 혹은 기관을 설치한 대학도 있다. 가령, 서울대는 ‘기초교육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학문의 기초 · 핵심교양 · 일반교양으로 세분화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간이 일구어낸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반추하는 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사유를 밝혀”주는 데에 목적이 있고, 전공영역의 교육은 물론 졸업 후 사회적 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였다.¹⁾

교양교육의 지향점은 거개의 대학이 대동소이하다. 다양한 지식과 사유를 통합하여 총체적 인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교양교육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여기서 다양한 지식과 사유를 하기 위한 대상 텍스트 중 하나가 ‘고전’이다. ‘고전’은 개성 · 시대성 · 지역성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하고 무한한 바다의 언어로 확대된 것이라 정의되곤 한다.²⁾ 그래서 고전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재생의 길을 찾는데 방향키 역할을 한다.³⁾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구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지난 학기 국어 시간에 고전문학을 주로 강의했었다. 학생들의 표정을 살필 수 없고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 강

1)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information> (검색일자 : 2010. 8. 21.)

2) 정병욱 · 이어령 공저,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2면.

3) 위의 책, 16면.

의를 듣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후로 따분하고 딱딱하다는 고문 시간으로 알려져 온 그런 고전강의를 듣기를 원했는지조차도 궁금하다. …(중략)… 고리타분하고 케케묵은 고전 작품을 왜 학생들에게 읽기를 강요하는 것인가. 이런 불평을 듣지 않는 바도 아니다.⁴⁾

1975년 5월 12일 『대학신문』에 실린 정병욱의 글이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교양교육의 강화가 새로운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그 주된 텍스트를 고전으로 하고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은 여전히 고리타분하고 케케묵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지금이다. 이 모순된 현실상황이 고전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그런데 고전이라고 하여 모두 다 고리타분함에 머물러있지는 않다. 현대화 작업에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강명관·안대회·정민 등 소장파 학자들이 내놓은 성과로 인해 한문학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고전소설은 언제나 대중매체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고전 자체가 궁지로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문학과 고전산문은 나름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전시가는 후미지고 인적 드문 지대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⁵⁾ 고전시가 연구자들 간 외에는 이렇다 할 소통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시대의 독자와 교양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인문교양 교과목으로서 고전시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4) 정병욱, 『고전 탐구의 뒤편길에서』, 신구문화사, 1982, 84면.

5) 김홍규, 「한국 고전시가 연구와 주제사적 탐구」,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6면.

고전시가는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소통력 부재로 인한 고립 상황에 봉착했다. 그런데 고전시가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 혹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 ‘이별’ · ‘기다림’ 혹은 ‘자기 정체성’ 등을 다룬 작품들이 즐비하다. 시대를 초월하여 논의될 수 있는 모티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장르가 고전시가인 것이다. 이에 고전시가 작품 모두가 거기서 거기라는 편견만 제거된다면,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작업은 그리 힘든 것도 아니다. 본고는 고전시가를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이해 · 감상하고, 현대와의 소통 원형을 목표로 하여, 고전시가를 주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과목이 갖추어야 할 요건

교양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의 가치는 날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요즘이다. 고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 하더라도 고전시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대화 작업의 미비로 인한 소통력 부재와 고리타분함이란 편견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 거기에 천편일률적이란 생각까지 겹쳐진다. 가령 시조하면 안빈낙도를 떠올린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문교양으로서 교과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치한 해독과 해석

둘째, 당대의 문화적 성향을 배경으로 한 이해와 감상

셋째, 현대 문학 장르와의 연결

넷째, 일상적 삶 속에 나타난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글쓰기와 발표, 토론

전문가가 아닌 교양인이 고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자와 옛 말의 축자적 해석에서 작품 감상은 출발한다. 작품 해석의 기초는 작품 자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품 밖에 지식은 차후의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 작품 외적 배경은 작품의 다양한 감상과 이해를 방해하기도 한다.⁶⁾ 호도의 맛을 보기 위해 일단 호도 껍질을 깨자는 것이다.⁷⁾ 일반 교양인은 호도 껍질을 깰 수 있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첫째 작업은 언어학적 지식·시의 내적 통일성 등 학문적 엄밀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첫째를 기반으로 둘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거는 지금과 비교하여, 사회·문화적 기반이 다르다. 문학적 소통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고전시 작가는 텍스트에 모든 것을 담지 않는다. 고전시 독자가 시인의 상황을 간파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창작을 둘러싼 모든 정보’ 즉, ‘텍스트 상황’과 텍스트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실상에 부합되는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다.⁸⁾ 또한 이러한 작업은 고전시가를 일상적 삶의 차원으로 복원하여 감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를 요건으로 넣은 이유는 교양인의 전제 중 하나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이 없어서는 교양인이라 하기 곤란하다.⁹⁾ 여러 면에서 읽기 힘든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그 시대의 정신과 생활을 알고, 나아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으며, 현대의 생활에 어떻게 살아 있는가를 아는 데 본

6) 성호경, 『한국시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새문사, 2009, 231면.

7) 정병욱·이어령 공저, 앞의 책, 17면.

8) 성기욱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79~80면.

9) 디트리히 슈바니츠, 인성기 외 옮김,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 들녘, 2001, 690면.

뜻이 있다.¹⁰⁾ 혼고나 주석을 통한 고전의 이해도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것이 고전이해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¹¹⁾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본질이 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본질의 표출양상을 달리하게 만든다. 본질의 동일함과 그 표출양상의 다름을 동시에 인지해야 한다. 이런 통합적 인식이 다른 종류의 신념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고, 제3의 관점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¹²⁾ 바로 이때 고전시는 무미건조하고 고리타분한 대상이 아니라, 마술 같은 존재가 된다.¹³⁾

이런 점에서 ‘고전은 고전으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감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독자의 정서와 시대적 추이에 맞게 고전은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배타적이기보다는 상보적이다.¹⁴⁾ 고전시가의 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 당대의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현대를 사는 우리 삶과 좀더 밀착시켜 고전시를 감상해야 한다. 그러면 고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고, 감수성 차원에서 고전시 향수에 대한 흡인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교양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은 소모적이기 십상이다. 성찰적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얻은 지식을 자신의 스타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교양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립되어

10) 정병욱, 앞의 책, 99면.

11) 같은 곳.

12) 디트리히 슈바니츠, 앞의 책, 692면.

13) 위의 책, 13면.

14)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36집, 2007, 143면.

15) 최규수, 『고시가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적’ 전망』, 『한민족어문학』 제38집, 2001, 67~70면.

16) 디트리히 슈바니츠, 앞의 책, 688면.

야 한다. 학생들이 쓴 글은 서로를 즐겁게 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이 억압적 표준, 불쾌한 과제, 경쟁의 형식,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교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거울 속에 자기를 비추어보아야 한다.¹⁷⁾

진정한 인문학적 탐구는 합의된 공동체의 윤리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던지는 역할을 한다.¹⁸⁾ 정치적이어서도, 시장논리에 휘둘러서도 곤란하다. 교양이란 앞서 말한대로, 인간의 상호이해를 즐겁게 해주는 의사소통이다. 인문교양의 역할은 매너리즘에 대한 문제제기이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쾌한 대화를 유도하는 데에 있다. 기존의 공공선을 파괴하고 또 다른 공공선을 세우는 작업이 인문교양의 목표이자 효용가치다.

3. 이 강좌의 이론 틀과 대상

이 강좌의 이론 틀은 문학주제학 더 나아가 문화주제학이다. 문학주제학은 특정 주제적 단위 내지 모티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장르의 다름에 따라 어떻게 변전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¹⁹⁾ 변전 양상을 살핌에 있어, 그 당대의 사회·문화적 성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문학주제학은 문화주제학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17) 위의 책, 693면.

18) 이택광, 『인문좌파를 위한 이론가이드』, 글항아리, 2010, 11면.

19)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24~6면.

변전 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같음과 다름을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같음은 보편성의 확인이고, 다름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인식이다.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고, 보편성과 역사적 차별성을 고구해내는 독법은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엔 인문교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문교양으로서의 역할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 속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주제적 단위여야 한다. 그래서 ‘내[自我]’와 ‘사랑’을 선정하였다. 두 주제는 인간의 존재 인식과 삶의 행위로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4. 이 강좌의 큰 열개

이 강좌의 큰 주제는 ‘나’, 그리고 ‘사랑’이다. 그런데 ‘나’와 ‘사랑’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중 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으로 좁힌 주제로 접근하려 한다. 인간의 성격이나 자아는 원초적으로 이중의 실체로 이해된다.²⁰⁾ 멀리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누구나 가면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 쓰고 벗는 것을 수시로 바꾼다. 나는 누구인가? 개인적 본능과 사회적 기대 간에 생기는 균열과 괴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두 개의 나를 형성하게 만든다. 혹은 부조리한 사회가 개인을 이중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분열 증세를 보이게끔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비단 현대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먼 옛 조상들에게도 마찬가지

20)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 지성사, 2007, 297면.

지였다. 한편, ‘사랑’은 ‘금지된 사랑, 불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륜적 사랑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문학적 소재로 부각되었으며, 요즘 드라마에서는 단연 으뜸의 주제적 단위로 확고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 이상의 것을 토대로 이 수업의 큰 열개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강의 주제	작품 및 강의 내용
‘내[자아]’(전반부) -이중 자아-	텍스트 해석	<관동별곡>
	문화적 배경	사대부로서의 삶과 시조
	현대와의 연결	이상(李箱)의 작품을 중심으로
	글쓰기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나’
	발표 · 토론 · 정리	
‘사랑’(후반부) -금지된 사랑, 불륜-	텍스트 해석	사설시조
	문화적 배경	조선 후기 문학에 나타난 불륜
	현대와의 연결	권지예의 <뱀장어 스투>
	글쓰기	간통죄 폐지 논란에 대하여
	발표 · 토론 · 정리	

5. 이 강좌의 내용 - ‘이중 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

1) 전반기 수업 내용 : ‘이중 자아’ 모티프

사이버 공간의 생성과 확대는 자아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키곤 한다.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간혹 사이버와 현실 공간의 혼돈은 현실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깐 지금의 우리는 이중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를 통합이나 혹은 혼돈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하겠다. 흔히들 말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유토피아로 이끌 것인가, 디스토피아로 인도할 것인가의 논란도 자아 정체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중 자아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은 시대를 따라 달리하겠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이중 자아의 문제는 늘 있어왔다. 자기 정체성 찾기란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 나를 나다움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물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격이나 자아는 원초적으로 이중의 실체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²¹⁾

‘도플갱어’ 모티프의 여러 모습을, 즉 문학에 있어서의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 작업을 ‘고전시가’를 시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필자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견해 개진에 목적이 있지 않다. 교과목 개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여러 작품에 대한 해석, 특히 현대 장르에 대한 것은 선학들의 견해에 많이 기대고 있음을 밝혀둔다.

(1) 텍스트 해석 : <관동별곡>에 나타난 ‘이중 자아’의 모습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고통만 안겨주고 있지만, <관동별곡>이 우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인생의 목적과 추구와 방향과 회귀라는 인간 생애의 보편적 역정²²⁾을 우리말의 묘미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 경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기에 <관동별곡> 속 여행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 순례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기대 속에 순례자는 갈등하고 있다. ‘페르소나’와 ‘아니마’의 갈등, 그래서 ‘가면과 진실’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관동별곡>을 읽고자 했던 김병국의 견해는 타견이라 할 만하다.

21) 위의 책, 297면.

22)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57면.

조선조 양반들의 관습적 사고 형태를 나타내는 연군의 정과 선계에의 동경으로 가득차 있는 <관동별곡>을 실기문학으로서가 아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독법으로 읽고자 한 것이다.²³⁾

江湖에 病이 김퍼 竹林에 누엇더니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

<관동별곡>의 첫 구절이다. 시적 화자의 갈등과 그에 대한 해결이 이미 서두에 동시에 마련되어 있다. “江湖”와 “方面”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던 관습적 갈등인 ‘處’와 ‘出’의 표출이다. 김병국의 해석에 의하면, 아니마와 페르소나의 충돌이다. 프로이드의 용어를 빌리면, 이드(Id)와 슈퍼에고(super ego)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방면”·‘페르소나’·‘슈퍼에고’를 선택한다. 끝을 알 수 없는 임금님의 은혜를 외면하긴 힘들었던 모양이다. 이른바 ‘몽중선연’이라 불리는 작품 말미에서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 논화 億萬 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의 고터 맛나 또 흥 薰 흥갓고야

라고 하여 일의 선후를 가리고 있다. 먼저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 강호에서 즐겁게 술 한 잔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실현 보다는 사회 실현에 우위를 둔 언급이다. 개인적 본능이 아닌 사회적 의무를 택한 것이다. 자기 실현과 사회 실현, 개인과 국가가 분리될 수 없는 유교적 가치관에 비추어 본다면, 우위를 두었다든가 택했다는 표현 자체

23) 위의 책, 33~5면.

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확실히 조선조는 개성보다는 규범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던 시대다. 수기(修己)의 궁극적 목적은 평천하(平天下)에 있음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된다. 인간은 갈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역동적 체계물²⁴⁾이라고 할 때, 조선조는 대개가 집단 이념의 추구로 조절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조절이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開心臺 교터 올라 衆香城 바라보며 萬二千峰을 歷歷히 혀여하니 峰마다
다 밋혀 있고 곳마다 서린 괴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人傑을 민들고자

圓通골 7는 길로 獅子峰을 츠자가니 그 알퓌 너러 바회 火龍沼 되어세
라 千年 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晝夜로 흘너 내여 蒼海에 니어시니
風雲을 언제 어더 三日雨를 디련는다 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내금강 등정길에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한 부분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만이천 봉우리를 보면서 인걸을 생각하고, 어두운 그늘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의욕에 찬 기상을 보여주는 페르소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금강을 지나 외금강·해금강과 동해로 접어들면서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

王程이 有限하고 風景이 못슬피니 幽懷도 하도 할사

24) 위의 책, 48면.

관원으로서의 여정이 얼마남지 않았다. 그런데 자연 속에 파묻혀 살고 싶은 욕망이 은근하게 고개를 든다. 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무가 지배했던 이전까지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개인/나라’, ‘본능/의무’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양항 대립과 갈등은 바다의 형상화를 통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꺾듯 노흔 고래 뉘라서 놀내판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격정적 파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구절은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시적 화자의 심적 갈등을 극도의 혼돈한 파도로 형상화하고 있다 하겠다. ‘페르소나’의 의식적 지향과 ‘아니마’의 무의지적 자율성이 충돌하는 혼돈의 모습이다.²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절과 조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다. 조화의 단계로 가기 전, 조선조 사대부들의 갈등은 ‘자연과 현실’, ‘개인과 나라’, ‘욕망과 의무’, ‘수기와 치인’ 등의 양항 대립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의 자아는 공존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관동별곡>의 시적 화자를 위시해 조선조 사대부들 대부분이 후자의 길을 택하거나, 적어도 결눈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2)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 유가적 사유에 바탕한 사대부로서의 자아 형성 문제와 시조

“江湖애 病이 김피 竹林에 누엇더니”와 “風景이 못슬피니”에서 볼 수 있듯, 정치 현실에 대한 참여 · 사회적 의무의 대척점에 놓인 공간은 ‘자연’이다. ‘자연’은 개인적 욕구의 공간이며, 때로는 신선계(神仙界)로 상징

25) 같은 곳.

화된다. 자연과 현실 두 공간은 당대를 사는 사대부들로 하여금 이중 자이를 갖게 하고, 갈등을 발생시켰다. 가령, 이현보와 맹사성의 시조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자연 저편의 공간인 현실을 계속해서 결눈질하고 있다. 맹사성은 조화를, 이현보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는 유가적 사유 방식과 관련된다.

사물의 이치가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한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꾸어지고, (…중략…)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대학』 ‘8조목’인 “격물 · 처지 · 성의 · 정심 · 수신 · 제가 · 치국 · 평천하”에 대한 설명이다. ‘평천하’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격물’이다. ‘물리(物理)의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物理之極處)’고 주지는 주에서 ‘격물’을 설명한다.²⁶⁾ 여기서 ‘물리’란 무엇인가. 『대학혹문』을 보자.

물격이란 사물의 이치 극처에까지 나아가 조금도 남음이 없음을 말한다. 사물상 이치의 극처에까지 나아가 남음이 없으면, 나의 앎 또한 그 조예에 따라서 극진하지 않은바 없다. 앎이 극진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또한 천리와 하나가 되어,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²⁷⁾

‘물리’란 ‘사물의 이치’다. ‘물(物)’은 ‘사(事)’라고도 했다.²⁸⁾ 물(物)이면서 사(事)이다. 그래서 격물치지는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면서

26) 성백효 역주, 『대학 · 중용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25면.

27) 박완식 편저, 『대학 대학혹문 대학강어』, 이론과 실천, 1993, 276~7면.

28) 성백효 역주, 앞의 책, 25면. ‘格 至也 物 猶事也.’

도덕적 인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²⁹⁾ 격물치지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자 ‘성의(誠意) · 정심(正心) · 수신(修身)[수기(修己)]’으로 전개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자의 궁극적 목적은 ‘평천하’에 있다. 평천하는 격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격물은 자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물론 주희와 왕양명에게 격물치지의 해석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물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과학적 탐구를 격물론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³⁰⁾ 이황이 말년 평천하의 꿈을 접고 1569년 도산서원으로 와 자연 속에서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인 것은 자신의 수신과 제자들에 의한 평천하 실현에 밑거름을 닦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보면 유자들에게 있어 자연이란 수기의 공간이자, 평천하를 이루기 위해 기초를 닦는 공간이다.

앞서 살핀 유가적 자연관은 정치로 대변되는 현실에 사대부는 결코 자유롭지 못 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를 사는 사대부들에게는 인식 차원에서 집단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 8조목은 이러한 사대부들이 해야 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격물’에서 ‘수신’은 ‘나[수기(修己)]’의 문제로, ‘제가’에서 ‘평천하’는 ‘세계[치인(治人)]’의 문제이다. 사대부의 자아 완성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유가에서는 자연과 나, 그리고 세계가 조화로울 때, 진정한 의미의 자아는 완성된다.³¹⁾ 이런 면에서, ‘치군택민(致君澤民)’로 상징되는 현실은 유자를 유자로 만들게 하는 자기 기반이며 정책이며 과제였

29) 금장태, 『한국유교의 과제』, 서울대출판부, 2004, 17면.

30) 위의 책, 19면.

31) 성기옥, 『고전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고산연구회, 1987, 29면.

기 때문에 ‘조월경운(鈞月耕耘)’으로 대표되는 자연 속에서의 삶과 더불어 떨어져 버릴 수 없었다는 나정순의 견해는 타당하다.³²⁾

현실에 뜻을 둘 수밖에 없는 유가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대부, 현실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수기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공간이다. 유가적 사유에 따르면, 다르면서 연결된 공간이 자연과 현실이다. 이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사대부들의 자이는 정체성 확보의 길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두 공간은 격절 공간이 되고, 자이는 양분화 된다. 양분화된 자아가 상충될 때, 개인은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황의 경우는 양분화를 극복한 주요 사례가 됨직하다. 이러한 양상을 성기옥은 <도산십이곡>의 정치한 구조 분석을 통해 밝혀놓고 있기도 하다. <도산십이곡>의 전육곡인 『언지(言志)』³³⁾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표³⁴⁾를 도출해내고 있다.

32) 나정순, 『고전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사, 2008, 47면.

33) 논의의 흐름을 위해 『도산십이곡』 『언지』 시조는 여기에 기재하겠다. 가독성을 고려해 임형택 · 고미숙이 엮은 『한국고전시가선』(창비, 1997)을 따랐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엇하료 (1연)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으로 늙어가네 /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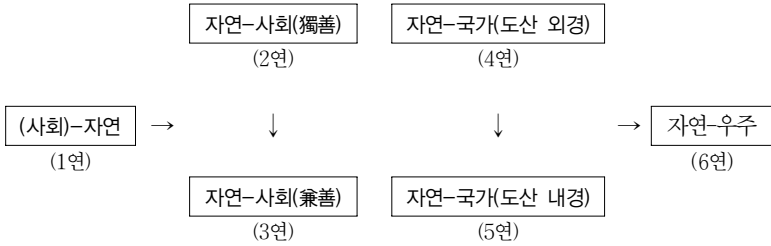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 인성(人性)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 천하의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속여 말쑥할까 (3연)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잊지 못하네 (4연)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流水)로다 / 떴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 어땡다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마음 하느고 (5연)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6연)

34)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자연과의 교유를 이루면서, '나 → 사회 → 국가 → 우주'로의 정교한 점층 구조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언지」는 보여주고 있다. 설사 시적 언표가 격절된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말 성질이 아니다. 조선 시대 자연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조의 인식이 자아 동일성과 정체성 확보의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중 자아의 모습

이중 자아를 이야기할 때, 이상(李箱, 1910~1937)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감도>, <거울>같은 일련의 시편들은 고전시는 물론 동시대의 작품들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감상하기 난해한 암호와 같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거울이 있기에 만날 수 있는 나. 그러나 거울로 만나는 나는 내가 만질 수가 없는 존재이다.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동일한 '나'가 아니

2002, 208면.

다. 만났지만 만질 수 없는 ‘나’가 ‘거울 속의 나’인 것이다. 자기이면서도 자기가 아닌 퍼소나(persona)로서의 이중적 삶을 누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³⁵⁾

거울을 향하여 면도질을 한다. 잘못해서 나는 생채기를 내인다. 나는 곶을 벌켜 내인다.

그러나 외글외글 들끓는 여러 ‘나’와 나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각기 베스트를 다하여 제 자신만을 변호하는 때문에 나는 좀처럼 범인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종생기>의 한 구절이다. 면도를 하다 상처가 나서 화가 난다. 이때 여러 ‘나’가 등장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기 힘들다. 누구의 잘못을 가린다는 자체가 보통에서 벗어난 행위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로 이상의 자아상은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문학적 상징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장르인 수필은 또 다른 면에서 이상 자체에 대한 자아상 파악을 헛갈리게 한다.

某氏は 하루 이런 이야기를 한다 - 요전에 샀던 것 깜빡 속았어 그러나 五圓만 밀지고 겨우 다른 사람한테 넘겼지 큰일날 뻔했는걸 - 이다. 偽造骨董을 모르고 高價에 샀다가 그것이 偽造라는 것을 알자 산 값에서 五圓만 밀지고 탄 사람에게 팔아 먹었다는 成功美談이다.³⁶⁾

한 개인의 소유로 있을 때, 골동품의 의미는 소멸된다. 골동품의 가치는 어느 시대의 생활양식 민속 민속예술 등을 알고자 할 때 비로소 중대

35) 김준오, 「이상의 <거울>」, 김용직·박철휘 편집,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1981, 165면.

36) 문학사상자료연구실편, 이어령 교주, 『이상수필전작집』, 갑인출판사, 1977, 52면.

해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위의 제시된 모씨의 행위는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상의 견해다. 너무나 실용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³⁷⁾ 이상의 시와 소설만 생각했던 독자는 당황했을 수도 있다.

이상의 대표 소설 <날개>는 심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어 이해하기 난해하다.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도 어렵다. 허약하고 무기력한 주인공이 아내의 매춘행위를 통해 얻은 돈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萬一 내게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實로 요만 程度의 간음을 犯한 때 내가 무슨 어려운 方法으로 곧 그것을 알 때 나는 「간음한 아내」라는 뚜렷한 罪名 아해 아내를 내어쫓으리라.

내가 이 世紀에 容納되지 않는 最後의 한꺼풀 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간음한 女는 내어쫓으라」는 鐵則에서 永遠히 헤어나지 못하는 내 곱팡 내 나는 道德性이다.³⁸⁾

‘간음한 女는 용납할 수 없다’는 <貞操>라는 글의 일부분이다. 도덕적 가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폐기처분할 것 같은 이상의 글치고는 생경하게 느껴진다. 곱팡내 나는 도덕성이라 스스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후까지 버리지 못할 막이기도 한 것이다. 전위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이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보수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학에 나타난 이중 자이는 대개는 조화와 화합의 길로 종결된다. 통합이 실현되는 것이다. 김만중의 <구운몽> 성진과 양소유로 표현되는 이중 자이는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자이를 불도의

37) 임현영, 『이상론』, 『권태』, 범우사, 1989, 9면.

38) 문학사상자료연구실편, 앞의 책, 127면.

세계로의 유입을 통해 통합의 길로 나아가 진아(眞我) 찾기에 정진하게 된다.³⁹⁾ 이에 비해 이상의 경우는 화합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은 분열된 자아상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 문학의 지향이 스스로의 운동량에 의한 변환을 완성하지 못하고 식민지화의 굴레의 속박되면서 붕괴된 세계 질서를 대체할 만한 유기적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현한 절망적 삶의 초상이다.”⁴⁰⁾라는 김홍규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최인훈의 <구운몽> 독고민은 어떤 정체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열된 모습만을 보이는데, 이 역시 복합적인 위기 상태의 현대적 자아 및 상실되거나 분열된 자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⁴¹⁾

(4) 자신의 언어로 글쓰기

조선시대 나뉜 자아를 통합시키는 집단 이데올로기도 사라지고, 자아 분열로만 작용했던 ‘나라 잃음’이란 상황도 이제는 없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와 국권상실이 사라진 대신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출현한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즘이다. 물리적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은 한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공간이다. 제약이 많은 물리적 현실 세계와는 달리 사이버스페이스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된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했던 간에, 이와는 다른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무제한의 자유는 위협의 요소를 함의하고 있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은 탈중심화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 속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고정성이 아닌 유동적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자아를 구성해나

39)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314~21면.

40)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204면.

41) 이재선, 앞의 책, 335면.

가기 때문이다. 단일한 자아 정체성은 새로이 출현한 공간으로 인해 도전 받고 있는 것이다.⁴²⁾

김영하의 소설 <삼국지라는 이름의 천국>은 위의 언급을 설득력있게 전달해주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경쟁에서 늘 밀려나 있는 인물이다. 상급자들의 질타 속에 하루하루 지루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은 다름 아닌 ‘삼국지’라는 온라인 게임이다.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글쓰기 주제를 선정해도 좋을 듯하다.

사이버 공간은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다중적이고 분산된 자아들이 제각기 분열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소통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바람직한 자아의 모습은 무엇이며 유연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요청되는가.’ 등을 글쓰기 과제로 요구하는 것도 좋겠다.

2) 후반기 수업 내용 :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⁴³⁾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그 표현은 시·공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사랑 표현은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금지된 사랑’으로 수업 내용 범위를 한정하였다. ‘금지’ 혹은 ‘금기’는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선시대의 금지 사상이 오

42) “4) 자신의 언어로 글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 논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김선희 연구책임자의 보고서에 의지해서 썼다. 김선희, 『자아정체성과 다중자아의 문제』, 2004.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참조.

43) 이 부분은 필자가 이미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이수근, 『불륜담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비교문학』 제5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참조.

늘날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금지된 사랑’이란 법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를 받는 사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법의 문제이며,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은 규범의 문제이다.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말하자면, ‘불륜’을 말한다.

(1) 텍스트 해석 : 사설시조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 꺾치 알피오라
뒤편 님 오며는 꼬리를 뒹뒹 치며
썩락 나리썩락 반겨서 내듯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로 버둥버둥 부르락 나오락
강강 즈저서 도라가게 혼다
신 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진본 청구영언』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다. 시어가 평이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을 통해 묘사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다루고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이다.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노래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입을 반겨 맞고 고운 입은 짖어서 쫓아 버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죄 없는 개한테로 옮겨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소박한 서민적 해학의 묘미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입을 내쫓는 개의 동작을 묘사한 부분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실감을 높인 것도 이 노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⁴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다. 님에 대한 간절함, 시적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개의 행위, 시적 화자의 소박한 분풀이 등이 어우러져 우스꽝스럽게 회화화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자 미적 기반이다.

(2) 일상적 차원에서의 작품 감상과 조선 후기의 ‘불륜담’

그런데 이 작품의 감상을 여기서 그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다. 블로그의 글에서는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작품의 온전한 해석의 관건은 개의 행위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가 시적 화자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 데에는 개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봐야 옳다. 본 항에서는 고전시가의 감상을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조선시대 일상적 삶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론하고 단언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나마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작품 해석의 풍부한 논의를 통해 현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시적 화자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 고전에서 기다림의 주체는 통상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적 화자인 여인은 어떤 신분일까. 기생 아니면 여염집 여자이겠는데, 여염집 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대개 기생집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는다. 낫선 이를 보면 짚는 행위를 하는 것이 개의 일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인이 기다리던 대상은 누구였던가. 고운 입과 미운 입의 실체를 파악해보자. 이 역시 개의 행위가 근거로 작용한다. 개는 낫선 이에 게는 경계를, 주인에게는 한없는 반가움과 충성심을 보인다. 이에 “꼬리를

44) <http://kmin1100.blog.me/40043615494>. (검색일자 : 2010. 11. 11.)

회회 치며 썩락 나리 썩락 반겨서 내똥”는 행위의 대상은 주인으로 볼 수 있다. “뒷발로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강강 즈저셔”는 낮선 이를 향해서 하는 개의 행위이다. 시적 화자에게는 미운 임이지만 개에게는 반가운 대상, 즉 시적 화자의 남편이요 개의 주인인 것이다. 시적 화자에게 고운 임은 개에게는 낮선 대상, 즉 시적 화자의 情夫요 개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적 화자는 정부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용감무쌍하고 대범한 여인이 된다.

南山에 눈 놀니 양은 白松鵬이 죽지 찌고 당도는 듯
漢江에 비 쓴 양은 江山 두루미 고기 물고 넘느는 듯
우리도 남의 남 거러두고 넘느러 불가 흐노라 『악학습령』

밋남진 그놈 紫驄 병거지 쓴 놈
소더 書房 그 놈은 샷병거지 쓴 놈 그 놈
밋남진 그 놈 紫驄 병거지 쓴 놈은
다 빈 눈에 정어이로되
밤中만 샷병거지 쓴 놈 보면 실별본 듯 흐여라 『육당본 청구영언』

어이려뇨 어이려뇨 식어마님 어이려뇨
소대 남진의 밥을 담다가 늦쥬격 잘늘 부르쳐시니
이를 어이 흐려뇨 식어마님아
저 아기 하 걱정 마스라
우리도 저머신 제 만히 것거 보왔노라 『진본 청구영언』

은근하든 노골적이든 불륜을 다룬 시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이라 할 만하다. 조선 후기 사회에 불륜이 어느 정도의 역사적·보편

적 사실로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현실과 예술은 항상 단순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모순·갈등·역설 등 균열로 나타나기 십상이다.⁴⁵⁾ 다만 그 상대자가 사랑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남의 남’ 이기에 불안하면서도 설레는, 내밀한 애욕이 존재하고 또 표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합리성의 계산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이고 맹목적 에너지에 지배된 정념과 정욕의 표출⁴⁶⁾은 고전시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야담과 고전소설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욕망[금지된 사랑에 대한 욕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용산차부(龍山車夫)>에서는 천민인 차부와 별감의 아내가 등장한다. 날이 저문 어느 날 차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 수각교 근처에서 소변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엿본 별감의 부인은 차부를 집으로 끌어들인다. 바로 동침할 것을 요구한다. 그때 꿈자리가 사나웠던 남편이 들이 닦친다. 부인은 차부를 다락에 숨기고 남편을 설득하여 당직소로 돌려 보낸다. 남편이 떠나자 처음보다 더 심한 음사를 한 판 벌인다. 일이 끝나자 부인은 피곤하여 꿀아 떨어지고 차부는 잠을 쉽게 못 이룬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저의 본부가 나보다 백 배나 훌륭하고, 나는 한갓 지나가는 사람인데, 무단히 끌어들여 이런 음란한 짓을 하니 이는 전혀 음욕 때문이다. 아까 본부가 백방으로 달래도 안 들은 것은 내가 다락에 있어서겠지. 저의 부모가 부부로 짝지워주었거늘 추행이 이 같구나. 사람이란 누구나 혈기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눈으로 보고서야 가만 둘 수 있나.⁴⁷⁾

45) M. 칼리니스쿠, 이영옥 외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4, 53~4면.

46) 김홍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39면.

이 독백이 끝난 후 바로 꺾녀를 칼로 죽인다. 그런데 부인을 죽인 사람으로 본래 남편인 별감이 지목된다. 별감이 당직소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을 했고, 이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때 차부가 관가로 가 모든 것을 실토한다. 이로 인해 차부는 의인으로 평가받고, 본부는 차부를 은인으로 여겨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상호간에 이루어진 간통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은 여성으로 국한된다. 차부인 남성은 용서의 대상이다. 나아가 여성을 스스로 처벌함으로써 도덕의 심판자로 탈바꿈되기까지 한다. 의인으로 칭송을 받는다.⁴⁸⁾ 사설시조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회화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도덕적 관념을 희석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야담은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세기 후반 한문단편 소설인 <포의교집(布衣交集)>은 앞의 거론한 것과는 다른 성격의 불륜을 다루고 있다. <포의교집>은 조선 후기의 변화된 서울의 성격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유교적 공간이 해체되고,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의 표현이 등장하게 된 조선 후기 서울의 성격을 <포의교집>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⁴⁹⁾ 무능한 한량 이생과 천민출신이지만 교양과 미모를 갖춘 유부녀 초옥과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소설 속 불륜이 동시대의 여타 작품과 다른 이유는 전적으로 초옥 때문이다. 초옥은 독특하고 새로운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신분은 미천하면서도 <통감> · <사략> 등 많은 문헌을 접했다. 미모도 뛰어났다. 많은

47) 이우성 · 임형택 역편, 『용산차부』,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96, 321면.

48)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 성, 사랑, 권력』, 『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52면.

49)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94면.

양반들이 초옥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 수없이 추파를 던졌지만 거절한다. 각 도에서 온 기생들도 초옥이란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다. 나름 유명세도 났다. 우유부단하기만 한 이생과의 사랑은 초옥이 던진 봉선화 꽃가지로 시작된다. 초옥이 추구했던 사랑도 다른 여인과는 변별적이다. 포의교집! ‘벼슬 안 한 선비들의 사قم’이 초옥의 바라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에 눈 먼 남정네들의 구애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이생과의 사랑을 원했다. 물론 오해의 소산이긴 했지만 말이다.

장사선이 이생에게 말했다.

“양파의 마음이 이미 형을 떠났는데, 형 생각은 어떻소?”

“길가의 우물을 어찌 혼자 마실 수 있겠소? 하물며 본디 내 물건이 아니었는데, 뭘.”⁵⁰⁾

중약이란 사람이 양파[초옥]를 갖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후에 장사선과 이생의 대화이다. 물론 장사선의 말은 거짓이었다. 양파의 마음이 이생을 떠난 적은 없었다. 장사선이 이생의 마음을 떠본 질문이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생의 대답에서 초옥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생은 초옥을 노류장화(路柳牆花)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생에게서 진정성을 찾기란 힘들다.

이 날 이후로 밤이면 밤마다 만났는데,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힌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이생이 양파를 찾아가니, 양파가 나와서 이생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양노인이 밖에서 문을 잡아 당겼다.

50)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175면.

양파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여기 이서방님이 와 계십니다.”

양노인이 이에 문을 열어 잠깐 보고는 도로 문을 닫고 나가며,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생이 양파에게 말했다.

“이제 반드시 변고가 나겠는걸.”

양파가 웃으며 말했다.

“상관없어요. 제가 낭군과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슨 변고가 생기겠어요?”

그리고는 조금도 난처해하는 기색이 없이 이생과 함께 예전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이생은 마음이 매우 불안했다.⁵¹⁾

여기서 양파는 초옥이고, 양노인은 초옥의 시아버지이다. 불륜의 현장을 시아버지에게 들킨 것이다.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가. 불안해하는 이생과는 아주 다른 태도다. 초옥이 이렇게 단호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생을 향한 진정성에 원인이 있다. 초옥은 이생과의 사랑을 불륜으로 보지 않고 ‘정행(貞行)’으로 여기고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와 달이 비록 이지러진다 해도 밝음에 무슨 손상이 되며, 강과 바다가 비록 탁해진다 해도 넓이에 무슨 해가 됩니까? 저의 언행이 비록 칭찬받기에는 부족하지만 또한 정절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⁵²⁾

초옥의 갈망은 사회 통념상 불륜이기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옥은 자신의 행위를 정행으로

51) 위의 책, 183면.

52) 위의 책, 201면.

여김으로써,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에 우선하여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포의교집>의 초옥은 근대적 주체로서 형상화되는 근대소설의 여성과 더 친연성이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⁵³⁾

<개를 여라든 ~> 시조를 당대의 문화적 배경 하에 이해하고자 조선 후기 다른 장르를 검토해 보았다. 문학은 사회와 동떨어진 진공상태에 있지 않다. 문학과 사회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물론 문학과 사회를 여과없이 곧바로 일대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하지만, 문학이 사회·문화적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포의교집>의 사랑 유형은 서울의 공간적 성격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유교적으로 쥬더화된 공간 해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울의 공간 성격은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포의교집>의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는 사회 여러 부면에서 그 전과는 이질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그 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노래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하나가 ‘금지된 사랑’이라고 판단하였고, <개를 여라든 ~>도 그러한 자장에 포함시켜 해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3) 현대문학 속의 불륜 : 권지예의 <뱀장어 스텝>

‘금지된 사랑’에서 ‘금지’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다. 사회가 변하면 ‘금지’가 ‘금지가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 금기시 하고 있는 사랑이 어느 시대에 와서는 보편적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금기’와 ‘금기 아닌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이다. 연상연하커플·동성애·호모와 레즈비언·혼전동거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존

53) 조혜란, 「<포의교집>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17~222면.

제하지만, 안과 밖의 경계선은 차츰 흐려지고 있다. 불륜도 마찬가지다. 불륜을 개인적 사랑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하지는 시각이 있다. 정당한 사랑의 한 형태로 간주하지는 것이다. 개인의 사랑을 국가 권력이 맘대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결혼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는 아주 유효한 제도이지만, 개인의 영역에 들어서면 거추장스러운 제도에 불과하다. 지금의 인간은 결혼의 제도적 편리를 누리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중욕망에 시달리고 있다 하겠다.⁵⁴⁾

불륜을 범죄로 여기는 사고는 가부장적 질서의 유지에서 비롯하였다는 시각이 있다. 도덕이란 원래 기득권자를 위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불륜과 사랑을 나누는 기준은 제도에 의해 생겨난다. 제도는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제도는 너무도 간단히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눈다.⁵⁵⁾ 그러기에 불륜은 사회적 통념이자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반항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지니기 마련이다. <포의교집>의 초옥을 읽는 독범이 여기에 있다. 초옥은 이생과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와 다른 모습이 권지예의 <뱀장어 스투>에 등장한다. 불륜이란 사고 자체가 희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뱀장어 스투>에서 그녀는 도덕적 갈등을 하지 않는다. 불륜이란 관념 자체가 자리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불륜을 그리면서도 사회에 대한 반항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편 혹은 ‘그 남자’와의 섹스는 오직 사랑의 결핍만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다.

54) 안남연, 『한일 불륜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84면.

55) 김미정, 『불가능한 사랑, 영원히 도주하는 타자들에 대해서』, 『문학동네』 41호, 2004 겨울호.

그녀에게는 두 개의 상처가 있다. 오른손목 자벌레처럼 오돌도돌한 흉터와 오래전 자궁에서 아이를 꺼내느라 생긴 아랫배의 철삿줄같은 흔적이 그것이다. 이 트라우마를 따스하게 감싸 준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그 상처를 지닌 스무 살부터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녀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도 그 상처들을 따뜻하게 훑아 주는 남자는 남편이 처음이었다. 치유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환부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의사처럼, 상처를 아주 잘 이해했다는 듯이 첫 섹스 후에 남편은 말했다.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 당신은 삶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자요.”⁵⁶⁾

남편은 자기와는 상관없이 생긴 그녀의 상처를 따스하게 훑어준다. 그녀는 상처의 치유를 느낀다.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은 결핍의 충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혼한 지 오 년이 지나서 갑자기 떠나게 된 여행에서 그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다.

그 순간 남편이 오른손목에 입술을 오랫동안 가만히 대고 키스를 해주었으면 하고 잠깐 바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⁵⁷⁾

갑자기 떠난 여행길에서 갑자기 왼손잡이도 아니면서 왜 오른손목을 그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술회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여행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자식을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는데, 이 여행길에서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아를 만난다. 그 후 다시 이런 술회를 한다.

56) 권치예, 『뱀장어스튜』, 『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02, 37면.

57) 위의 책, 38면.

몸이 몹시 떨어져 남편의 두 팔이 그녀를 푹푹 묶어 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⁵⁸⁾

영원의 지속을 꿈꾸는 사랑·결혼은 환상일 뿐이다. “사랑은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결혼은 결핍의 확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랑은 결핍의 충족을 위해서 한다. 사랑의 결과 중 하나가 결혼이라고 할 때, 결혼은 사랑의 결핍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역설적 결과는 낳는다.

입양된 아이의 아빠인 그 남자를 그녀는 불규칙한 기간을 두고 습관적으로 찾는다. <뱀장어 스투>의 중반부부터는 이 남자와의 이야기인데, 동물원 우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암컷 원숭이 이야기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첫사랑의 고향을 반복적으로 되뇌다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온다. 두 이야기는 공히 마음속 고향을 찾는 이야기이다.

암컷은 어디에 갔을까요. 그녀는 정말 탈출을 시도했던 걸까요. 그녀는 갇혀 있는 우리 밖이 자신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평원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짧은 여행을 떠났었는지도 모르겠어요.⁵⁹⁾

“우리 어머니, 황혼녘만 되면 큰 형님네 집 현관문 앞에서 당신 신 내 놓으라고 떼쓰셨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한 오 년 간 고생하셨지. …(중략)… 어머니는 솔미재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에 줄곧 집착하면서 …(중략)… 어머니가 한 동네 살던 아버지에게 시집오기 전에 남몰래 사랑한 총각이 강 건너 솔미재에 살았었다는 거야.⁶⁰⁾

58) 위의 책, 41면.

59) 위의 책, 43면.

60) 위의 책, 49~50면.

아프리카 평원을 찾으려는 원숭이, 첫사랑의 공간인 솔미재를 무의식 중에 갈구하던 어머니는 그녀의 또다른 나다. 원숭이가 아프리카 평원을 갈 수 없듯이, 어머니가 가려던 솔미재는 이미 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듯이, 그녀가 습관적으로 찾는 그 남자 역시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여자는 다시 자신이 모래밭의 두꺼비집인 것처럼 생각됐다. 속의 공동(空洞)을 넓히려 손을 넣어 모래를 파내고 속을 비우는 찰나 무너져 내리는 모래집. 남자는 갈퀴손처럼 여자를 한없이 비우고, 여자는 부서져 내리고, 남자는 더 깊어지는 허기로 결국엔 나가떨어질 것이다. 늘 그랬다.⁶¹⁾

따스한 위안을 주던 남편과의 섹스도, 온 몸이 나른해지도록 격렬한 남자와의 섹스도 그녀에게 사랑의 불가능성만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⁶²⁾ 그녀는 결국 평화로움에 길들여지는 길을 택한다. 평화로움에 길들여지는 길이란 집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스튜 냄비처럼 “인생은 화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장엄하지도 않으며 다만 뱀장어의 몸부림과 같은 걱정을 조용히 꿰여 내는 것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용서를 주고 받는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삼계탕을 꿰여 주고 싶어한다.” 그렇게 평화로움에 길들여지는 길, 이것이 사랑을 찾아 떠난 긴 여정의 종착지였다.

<뱀장어 스튜>의 작가 권지예는 불륜과 사랑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탈피하려 했다. 잣대를 도덕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개인적 삶의 열정 문제로 대체하려 한 것 같다. 불륜담이기에 흔히들 기대하는 짜릿한 육체적

61) 위의 책, 54면.

62) 김미정, 앞의 글.

향연,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관음적이고도 통속적 흥미는 <뱀장어 스투>에는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섹스가 그녀에게는 오직 상처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⁶³⁾

(4) 자신의 언어로 글쓰기

불륜은 인류 통성에 기반한 행위인지도 모르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음이 확인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애(自己愛)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둔 행위가 불륜이기 때문이다.⁶⁴⁾ 유교적 질서가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에 불륜담이 문학적 테마로 출현하였다 하여 놀랄 일도 아니다.

불륜은 인류의 통성이자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지만, 삶 속에 조화되는 먼 거리에 있으며, 여전히 고통스러움을 동반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진화 원칙은 ‘은밀한 외도와 함께 하는 일부일처제’라고 하기도 한다.⁶⁵⁾ 불륜은 인간의 본능이자 은밀한 개인적 행위이면서, 그것의 표출양상은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개인적 욕망과 사회 질서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단 한 번도 합법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껏 사회적 구속력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회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구속력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불륜 모티프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는 지금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이런 진지한 물음은 글로써 정리해야 한다. 간통죄 폐지와 존치는 매번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63) 권영민의 심사평, 『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19~20면.

64) 게르티 쟈어, 함미라 옮김, 『불륜의 심리학』, 소담출판사, 2009, 32면.

65) 위의 책, 105면.

인식 변화에 기반하여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성도덕과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견재하다. 2001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상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2008년의 경우, 재판관 9인 중 4인의 합헌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보았다. 의사결정의 정족수 2/3를 못 채워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적어도 2011년까지 간통죄는 유효하다.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간통죄 폐지 존치의 문제’를 과제로 부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의도적으로 객관화 시킨다.⁶⁶⁾ 언어만이 산만한 감정 상태를 정리해주고, 인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때 비로소 진지한 사유와 성찰이 가능해 진다.⁶⁷⁾ 인간은 사유를 언어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사유한다. 따라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사유가 안개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언어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교양인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획득한 지식이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6. 나오며

본고는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

66) 디트리히 슈바니츠, 앞의 책, 589면.

67) 같은 곳.

서 그 한 예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인문교양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먼 옛날을 살았던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고전은 예전의 글이면서 지금의 글이기도 하다.

고전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낭만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 고전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고,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시대적 한계를 견어내고, 시대를 초월하는 요소를 건져내어, 그 점을 곰곰이 되새김질 하다보면 자연스레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을 통해 하나의 지적 놀이를 하자는 취지에서, 고전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고전을 엄한 부친이 아니라 친구같은 아버지로 여기는 친교 속에서 우리의 사유는 원숙해지고 때로는 참신하게 될 것이다.⁶⁸⁾

고전시가 이외의 장르나 사회의 여러 쟁점에 대해 정리된 시각이 필자에게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에, 본고는 거칠기 짝이 없는 글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개진한 이유는 국문학 전공자가 아닌 교양인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조언을 구하는 입장에 필자는 서 있다.

참고문헌

- 권영민 심사평, 『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02. 1~380면.
권지예, 『뱀장어스튜』, 『200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02. 1~380면.

68) 김용석, 『고전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고?』.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46586.html (검색일자 : 2010. 8. 21.)

- 금경태, 『한국유교의 과제』, 서울대출판부, 2004. 1~222면.
- 김경미 · 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1~256면.
- 김경미, 『서울의 유교적 공간 해체와 섹슈얼리티의 공간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3~211면.
-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1~392면.
- 김준오, 『이상의 <거울>』, 김용직 · 박철휘 편집,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1981. 1~373면.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1~241면.
- 김홍규, 『한국 고전시가 연구와 주제사적 탐구』,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5~12면.
- 김홍규,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22~50면.
- 나정순, 『고전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서, 2008. 1~355면.
- 문학사상자료연구실편, 이어령 교주, 『이상수필전작집』, 갑인출판사, 1977. 1~385면.
- 박완식 편저, 『대학 대학혹문 대학강어』, 이론과 실천, 1993. 1~514면.
-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1~602면.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195~229면.
- 성기옥, 『고전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고산연구회, 1987. 205~248면.
- 성백효 역주, 『대학·중용 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1~160면.
- 성호경, 『한국시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새문사, 2009. 1~302면.
- 안남연, 『한일 불륜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81~200면.
- 이수곤, 『불륜담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비교문학』 제5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89~111면.
- 이우성 · 임형택 역편, 『용산차부』, 『이조한문단편집 상』, 일조각, 1996. 1~468면.
-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607면.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 지성사, 2007. 1~477면.

- 이택광, 『인문좌파를 위한 이론가이드』, 글항아리, 2010. 1~350면.
- 임현영, 『이상론』, 『권태』, 범우사, 1989. 1~165면.
- 임형택 · 고미숙, 『한국고전시가선』, 창비, 1997. 1~309면.
- 정병욱 · 이어령 공저, 『고전의 바다』, 현암사, 1977. 1~584면.
- 정병욱, 『고전 탐구의 뒤편길에서』, 신구문화사, 1982. 1~370면.
-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2007. 127~149면.
- 조혜란, 『<포의교집> 여성주인공 초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89~223면.
- 최규수, 『고시가 연구의 ‘현재적’ 위상과 ‘미래적’ 전망』, 『한민족어문학』 제38집, 2001. 61~76면.
-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 성, 사랑, 권력』, 『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243~275면.
- 디트리히 슈바니츠, 인성기 외 옮김,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 들녘, 2001. 1~768면.
- M 칼리니스쿠, 이영옥 외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4. 1~426면.
- 게르티 쟅어, 함미라 옮김, 『불륜의 심리학』, 소담출판사, 2009. 1~294면.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information> (검색일자 : 2010. 8. 21.)

ABSTRACT

Example of the Classical Poetry Curriculum as Liberal arts

Yi, Su-gon*

This study aimed at Liberal arts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the classical poetry. This is part of the purpose to reinforce of the classical poetry communication skills. For achieve desired objectives, the view of Thematics is theoretical framework. Specifically, Thematic unit is 'The Double Self' and 'Forbidden love, Infidelity'. Example of curriculum is presented. Liberal arts is currently living our problem. But, our problem is also problem of ancient. Therefore, 'The Double Self' and 'Forbidden love, Infidelity' was determined appropriate literacy motif.

Key Words Liberal arts, The Classical Poetry, Communication, Thematics, The Double Self, Infidelity.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S. N. U. T., Assistant Proessor